

住居의 人間學的인 意味

Housing Humanics

—Existentialistic Approach in Housing Humanics—

慶熙大學校 文理科大學 家庭管理學科
專任講師 洪 亨 沃
Dept. of Home Management
Kyung Hee University
Instructor; Hyung Ock Hong

<目 次>

- | | |
|--------------------|-----------------|
| I. 緒 論 | V. 建築的 空間 |
| II. 人間에 대한 理解 | VI. 住居의 人間學的 意味 |
| III. 人間-世界(環境)의 關係 | VII. 結 論 |
| IV. 實存的 空間 | |

<Abstract>

A review is made on the basic concept of Housing Humanics based on the Existentialism of Otto F. Bollnow. For the identific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housing and human being as well as for the application of psycho-social approach to the housing research, following items are analyzed:

1. Bollnow's view on the human being
2. Man-world(=environment) relationship
3. Existential space
4. Architectural space
5. What housing means in terms of Humanics

I. 緒 論

住居(housing)의 意味는 그 接近方法에 따라 다양하게 포착될 수 있다. 住居의 社會的 接近에 있어서, 人間의 住居에 關한 行動(housing behavior)은 意味있는 他人으로부터의 尊敬의 손실과 地位에 대한 잠재적 위협에 의해 動機化되는 것으로 간주 된다.¹⁾

住居의 建築的 接近에 있어서는, 한때는 機能主義(Functionalism)를 주장하는 國際主義 樣式(Int-

ernational Style)이 흥미하기도 하고²⁾, 한때는 形態와 機能을 하나로서 파악하며, 機能에 適切하게 材料에 適切하게 그속에 使用되는 構造技術에 적절한하게 한다는 有機的 建築(organic architecture)³⁾이 각광을 받기도 하면서 形態와 空間과 構造를 만들어 나간다.

住居의 心理的 接近에 있어서, 사람은 自身들이 만든 建築物 속에서 成長하고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自身の 行動을 새롭게 하는 지속적인 과정 속에서 자기를 改造하며, 이 관계의 모든 부분에 秩序의 感覺이 깊이 內在하고 있어서 人間의 의식,

육구, 정서, 사고라고 하는 心理的인 움직임과 建築에 대한 機能의 관계⁴⁾에 주목하게 된다.

그런데 建築은 人間이 만들어낸 환경이며, 人間은 이 환경에 의해서 자기를 改造하는⁵⁾, 즉 人間은 변화하는 환경에 대해 적응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技術에 의해 그의 生活과 그 자신을 끊임없이 안전하게 변형시킬 수가 있다는 신화가 생겨났다고 해도⁶⁾, 실제로 人間の 적응력에 生物學的, 心理的 한계가 있다. 결국 人間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住居의 意味는 궁극적으로 居住性(Gewohnheit)에 있는 것으로서 居住性的 根底를 알기 위해서는 哲學的 思惟가 요청된다.

本稿의 目的은 Otto F. Bollnow의 思惟를 기본 전제로, 住居의 人間學的인 意味, 다시 말해서 人間の 本質規定에 대한 집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를 기존의 文獻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는 데 있다.

이는 人間에 있어서 私의 空間(personal space)의 확보에 中心概念이 되는 것이며, 住居의 意味에 대한 哲學的, 心理的 接近을 통해 物理的 解決을 하고자 하는 住居에 대한 人間の 本質的 要求에도 부응하는 것으로서, 住居에 관한 研究에서 근본적으로 집고 넘어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II. 人間에 대한 理解

사람은 삶의 주체이면서 또한 사람은 삶을 통해서 스스로를 이룩한다. 사람은 삶의 창조자이며 또한 삶의 피조물이다. 삶은 움직임으로서의 사람의 현상이고 사람은 움직임으로서의 삶을 통해서만 스스로를 형성하고 움직임으로서의 삶에 있어서만 스스로를 밝힌다. 곧 사람은 고정적인 불변의 本質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늘 자기를 형성해가는 과정으로서의 歷史的인 存在이다.

그런데 사람이 무엇이나에 대한 우리의 해답에 따라서 삶의 현상에 대한 理解가 달라진다. 다시 말하자면, 人文社會現象에 대한 우리의 理解는 사람의 本質에 대한 우리의 理解에 따라서 근본적으로 좌우된다. 즉, 사람을 客觀的으로 對象化하는 人間學은 있을 수 없고 다만 사람의 實存을 間接

的인 方法으로 밝히는 실존해명(Existenzerhellung)의 哲學이 있을 뿐이다.⁷⁾

Bollnow는 實存主義를 비판적으로 다룬 實存主義 哲學者이다. 그러나 그는 실존주의 철학자가 궁극적인 것으로 그렸던 불안한 存在로서의 人間과, 主觀과 客觀의 對立을 초월한 包括的 存在(세계내존재)로서의 人間, 自由를 本質로 하는 열린 끝, 즉 完成을 향해 움직여 나가는 한 可能的 存在로서의 人間像에 착안하여 그의 人間觀을 정립시켜 놓은 독특한 철학자이다. Bollnow의 人間觀은 人間은 主體的 存在이며 人生은 모순적 存在像을 지니고 있고, 人間은 심정적 존재이고 역동하는 존재이며, 不可測的인 존재로서 종교성을 지닌 존재이며 위기와 맞서고 있고 人格的 存在라는 것이다. Bollnow는 人間 環境을 ‘세계’로 본다. 물론 ‘환경’이란 空間的으로 오인되기 쉬운 의미이기도 하나, 보다 적극적인 意味가 함축되어 있는 관계개념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즉, Bollnow가 말하고 있는 세계란 人間實存과는 二元論의임을 알 수 있다. 그는 人間이 그 自身으로부터 엄연히 事實로 확인되는 모든 것은 다 世界로 보았으며, 이 세계는 人間の 힘으로 願하거나 좋아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처음부터 제한되어 있고 짐지워진 決定的인 狀態로 보았다⁸⁾. 또한 이 세계는 現存在가 自身을 잃어버리기 쉬운 곳이며, 그가 자기의 本來的인 實存을 찾아내기 위해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될 곳이다. 그러므로, Bollnow가 ‘世界’라고 부를 때는 외적 현실계만 국한하여 부르는 것이 아니고 人間の 삶 自體의 現實界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III. 人間-世界(環境)의 關係

Bollnow는 世界와 人間과의 關係概念을 실존철학의 입장, 곧 ‘世界와 人間과의 關係는 지워버릴 수도 없는 二元性和 同根源性이며 어느하나도 다른 하나로 유도될 수 없다’는 立場을 기초로 받아들여 세가지로 그 關係를 말한다⁹⁾.

첫째로, 人間과 世界와의 關係는 서로 ‘의존’관계에 있다. Bollnow는 이 관계를 밝힘에 있어서 Heidegger의 인간이해 ‘世界內存在’로서의 人間

을 등장시킨다. 그런데 여기서 世界內存在라 함은 어떤 공간 속에 들어 있는 人間이라는 뜻이 아니고, 人間實存에 世界에 의존되어 있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둘째로, 世界를 ‘不安’한 곳이며, 人間도 거기에서 不安을 갖는다고 본다. Bollnow가 본 世界는 그 自身속에 독특한 긴장감을 포함하고 있는 곳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여기서 實存의 不安을 느끼고 그것에서 부터 해방을 갈망하는 모습을 본다. 그래서 그는 실존주의의 이 不安한 人間像에 착안하여 不安하고 외로운 사람이 삶의 世界에 착실하게 발을 붙이기 위해서 먼저 ‘집’이 필요한 것이며 이 집은 理性만이 이룩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집을 짓기 위해서 잃어버린 理性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사람의 삶은 근본적으로 낯설은 世界에 도전해서 집을 짓고, 이를 근거로 해서 마을과 도시를 만들고, 이를 더욱 넓혀서 삶의 世界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집을 짓는다는 것, 도시를 만든다는 것, 世界를 형성한다는 것은 질서의 영역을 점점 넓히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는 理性的 行動을 통해서만 이룩된다는 것이다¹⁰⁾. 이처럼 實存哲學이 가르치는 사람의 절대적인 內面世界와 낯설은 外部世界는 사람의 삶의 보금자리로서의 집을 통해서 비로소 연결된다. 외롭고 불안한 實存이 집을 통해서 삶의 세계와 결부된다는 것이다. 實存主義에 의하면 外部世界는 낯설은 世界일 뿐아니라 사람이 마음대로 지배할 수 없는 숙명적인 世界이고, 위협적인 世界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그의 內面世界에서 절대적이고 최종적인 피난처를 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집은 사람에게 있어서 낯설은 곳은 아니며 숙명적인 위협의 세계도 아니다. 정상적으로는 집은 친숙하고 안정된 보금자리로서 삶의 근거지이다. 이런 의미에서 집의 현상은 人間學的인 意味를 갖는다.

Bollnow가 여기서 ‘집’을 삶의 하나의 구체적 現象으로 선택해서 그의 哲學的인 意味를 드러내려는 것은, 그것이 삶의 질서(Lebensordnung)와 삶의 형성(Lebensgestaltung)의 가장 단순하고 뚜렷한 상징이기 때문이다¹¹⁾.

세째로, 世界는 人間の 자유로운 행동을 제한하는 절대적인 것으로서 人間에게 對立된다는 것이

다. Heidegger의 世界內 存在와 마찬가지로 人間은 現實속으로 던져져 있는 存在이고 世界는 이 實存이 들어 있는 독특한 장소로 理解되며 人間은 그가 원하거나 좋아 하거나 어떤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制限되어진 ‘이미 주어진 것’임을 역설한다. 즉 이것은 人間の 有限性을 規定지어 주는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Bollnow의 世界와 人間과의 關係는 서로 의존하는 관계(主觀과 客觀을 意味하는 單純한 兩極의 關係)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自身속에 독특한 긴장(불안)을 包含한 關係이며, 뿐만 아니라 外界로부터 그의 자유로운 運動을 制限하는 절대적인 것으로 대립한다는 결론에 이른다¹²⁾. 이러한, 內面世界와 外部世界의 단절된 對立은 삶을 불가능하게 한다. 그런데 집은 이러한 內面世界와 外部世界의 대립을 극복하는 삶의 교두보라는 것이다.¹³⁾

IV. 實存의 空間

實存의 空間이란 비교적 안정된 知覺的 schemata의 體系 즉 世界=環境의 이미지임은 지금까지의 論議에서 밝혀졌다. Merleau-Ponty가 지금까지 空間은 實存的이다라고 말하여 왔으나 實存이란 空間의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과 같이 空間이란 우리의 ‘世界內存在’를 표현하는 여러 構造 가운데 하나이다. Merleau-Ponty도 Bachelard도 Bollnow도 “實存은 空間의이다”라고 주장한 Heidegger의 理論에 힘입은 바 크다. 즉 Heidegger는 “人間과 空間을 分離할 수 없다. 空間이란 外的인 對象物도 아니며 內的인 體驗도 아니다. 人間과 空間은 따로 끊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存在와 時間(Sein und Zeit)이란 책에서 人間の 空間의 實存的 性質을 강조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즉, 위에, 천정에, 아래에, 마루에, 뒤에, 문간에라고 하듯이 모든 ‘어디’는 觀察에 의한 空間測定으로 확인되고 또 기록되는 것은 아니며 諸 空間은 그 存在를 場所로부터 받는 것이지 소위 ‘空間’으로 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住居에 대한 그의 理論은 “人間이 場所에 대하여 갖는 관계와 장소를

지나 空間에 이르는 關係는 住居에 存在한다” “살 수 있게 될 때 비로소 세울 수 있다” “住居란 實存의 本質的 特質이다”라고 하였다.¹⁴⁾

實存的 空間은 수많은 현상의 類似性으로 부터 抽象된 하나의 일반화로서 ‘對象’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Piaget에 의하면, 對象이란 繼起的移動을 통하여, 어떤 일정한 空間形態를 부여받고, 또한 時間의 경과와 함께 전개하는 因果系列 속에서 개체로서 分離될 수 있는 하나의 항목을 구성하는 知覺의 光景의 한 體系이다. 그러므로 構造化된 世界觀은 幼兒期를 통하여 점차적으로 발전되는 것이며 더우기 必然的으로 이 世界觀은 空間概念의 발달적 계열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실증한다.

그러면 이 발달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 Piaget는 보통 이 과정의 特質을 保存(conservation)이라는 말로 설명한다. 가장 기본적인 체험은 對象이 消滅하거나 다시 돌아온다 하여도 그 對象自體는 영구적임을 알 수 있다. 즉, 그것은 가장 먼저 幼兒가 世界를 類似性的 體系로서 구성하는 것——즉 認識하는 것을 배우고 그 다음에는 認識한 對象을 보다 包括的인 전체, 결국 空間에 위치시키므로써 그들의 對象을 특정의 場所에 연결시킨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점차 幼兒는 安定된 대상물과 움직이는 對象物을 식별하고 安定된 대상물을 움직이는 대상물을 위한 좌표계로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장소개념의 발달과 여러 장소의 體系로서의 空間概念의 발달이 實存的 根據地(existent foothold)를 발견하기 위한 필요조건인 것이다¹⁵⁾.

이상과 같이 知覺의 發達이 自發的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人間의 空間은 主體를 軸으로 하여 中心化되어 있으며 自己世界的 中心으로서의 집에 대한 概念은 幼兒期로 거슬러 올라간다. 처음부터 中心은, 주위에 펼쳐지고 있는 미지의 무언가 두려움을 불러 일으키는 世界와는 對照的으로 이미 알려진 것을 人間에게 나타낸다. 그것은 人間이 思考하는 存在로서 그 空間內에서 위치를 획득하는 점, 즉 그 空間內에서 인간이 지체하여 정착하는 점이다. ‘집’이라는 말은 어떠한 사람에게도 그 사람의 個人的 世界에는 中心이 있다는 것을 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성장하는 사이에 個人이 행하는 諸行爲는 分化하고 多樣化한다. 따라서 새로운 中心이 본래의 ‘집’을 補完하게 되는데, “모든 中心은 行爲의 場所로서 모든 社會的 相互作用이 일어나는 장소이다. 그러나 그러한 場所는 언제나 限定되어 있고, 그것은 人間에 의해 만들어지고 인간의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세워져 온 것으로서 장소를 占한다든가, 급기야는 移動性的의 문제까지 발생이 된다. 그러나 構造化된 環境은 그것을 認識하는 능력, 즉 移動하지 않는 비교적 불변한 場所에 의존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끊임없이 變化하는 世界는 schemata를 형성하지 못하게 하며, 人間의 發達도 不可能하게 된다¹⁶⁾.

어떤 場所의 특징은 어떤 一定한 크기로서 정해진다. 그러나 直接的인 私有空間(Eigenraum)과 즉, 영역(territoriality)과 既知의 場所에 대한 더욱 추상적인 이미지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私有空間은 Edward T. Hall에 의해 研究되어 왔는데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territoriality는 보통 有機體가 어떤 토지에 대하여 自己의 所有權을 主張하고 사기와 같은 종족중 다른 個體에 대항하므로써 그 토지를 방어하는 행동을 포함한다. territoriality는 학습의 장소, 유희의 장소, 몸을 숨기기 위한 안전의 장소와 같은 사물이 이루어지는 베두리를 設定한다……개체사이에 維持되어야 하는 距離를 나타내는 限界를 날카롭게 느끼는 것은 territoriality의 基本¹⁷⁾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territoriality라는 概念으로 정의된 私的 空間과 實存的 空間을 혼동해서는 안된다. 實存的 空間은 大部分 公共的인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보다 思惟的인 것으로서 個人은 公共的 空間 안에서 自己의 個人的 장소를 발견¹⁸⁾해 내는 것이다. 그리하여 具體的 物理的 형태의 私的 空間은 空間도 限定되고 比較的 規模도 작은 것이다. Rudolf Schwarz에 의하면 어떤 領域은 그것이 小規模일 때 비로소 집이 될 수 있다……定着地가 하나의 집이 되려면 그 規模는 상상 가능한 범위내에 머물러야 한다고 말한다. Bollnow는 이 사실을 표현하기 위하여 庇護性(Geborgenheit)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醫學的 立場에서 ‘집’의 개념을 연구하여온 정신과 의사 J. Zutt의 말을 인용한다. Zutt는

“보통 살고 있는 집에 있어서 우리는 최대한의 空間的 庇護性을 갖는다”라고 말한다. 이렇게 定義하여 볼 때, 場所에는 뚜렷한 限界 또는 境界線이 必要하며 그리하여 場所는 그것을 둘러싼 ‘外部’와는 對照的으로 ‘內部’로서 체험되는 것이다¹⁹⁾.

私的인 空間의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中心概念은 ‘자기 것’이라는 소유개념이 들어간 territoriality²⁰⁾이라 할 때 Hall은 人間은 다른 사람이나 물건으로부터 어떤 거리를 두고 싶어하며, 이러한 보이지 않는 空間概念을 人間의 territory에 대한 집념으로서 나타내고 그것은 現代사회에서 반영되어야 한다²¹⁾고 주장하고 있다.

Heidegger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세운다는 것은 무엇을 意味하는가? 옛 독일어에 세운다는 것은 ‘buan,이며 거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체재하는 것, 머무르는 것이다. ‘bin,이라는 것은 세운다는 것의 古語에서 유래한다. 따라서 내가 있다. 네가 있다라는 것은 내가 거주한다 네가 거주한다함을 의미한다. 네가 있다. 내가 있다라는 그러한 方法, 즉 人間이 大地위에 있다는 그 方法은 ‘buan,이며 居住함이다.……거주함이란 實存的 基本的인 原理이다”²²⁾. 따라서 住居란 어디까지나 實存的 中心的인 場所, 즉, 어린이가 自己가 世界內存在임을 이해하게 되는 場所이며, 사람이 거기로부터 出發하거나 거기에로 回歸하는 그러한 場所이다. G. Bachelard는 住居를 人間의 生活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統合力의 하나이라고 하는데, 住居에 있어서야 말로 人間은 자기의 正體(identity)를 발견한다²³⁾. 住居는 우리들을 참으로 안으로 따라오게 하는 것이며 그리고 거기 놓이고 싶다는 욕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住居는 일차적으로 하나의 ‘場所’에 대한 構造이다. 그러나 그것은 몇개의 二次的 場所와 그것을 統合하는 通路로 區分되는 內的 構造를 포함하고 있다. 住居가운데에서는 여러가지 活動이 행해지며, 그것이 전체로서 통합되므로써 生活의 한 형태가 표현된다. 이들의 활동은 住居의 外側과 垂直, 水平의 基本적 方向과 다양한 關係를 갖는다. Bachelard가 住居의 ‘垂直性’에다 제일의 重要性을 주는 것은 居住함이란 단순히 ‘大地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天國의 밑에 있다’²⁴⁾

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Heidegger가 論한 根本的 關係를 Bachelard도 분명히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住居는 대지위에 있는 장소를 人間의 것으로 확보시켜 주는 것이지만 垂直이란 것은 항상 그 人間과 함께 있다. 일반적으로 住居란 居住함의 構造를 住居의 모든 物理的, 精神的 諸 側面을 갖고 표현하는 것이다. 住居는 다양한 性質을 가진 場所로 구성된 하나의 空間으로서 구체화된 意味있는 諸 活動의 體系로서 이미지되는 것이다.

V. 建築의 空間

實存的 空間의 場은 그것에 對應하는 建築的인 場에 의하여 表現된다. 즉, 建築的 空間은 實存的 空間의 ‘具體化’라 정의할 수 있다. 實存的 空間이란 하나의 心理的 概念으로서 人間이 環境과 相互作用하면서 만족스럽게 生活하여 가기 위하여 발달시킨 schemata인 것이다. 그러나 人間과 環境과의 상호작용의 결과 얻어진 것이라하여 반드시 완성된 이미지는 아니며 보통은 모순을 포함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특별한 장소에 속하여 있다는 감정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환경은 꿈이나 소망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人間은 환경을 변혁시키려고 하는데, 바꾸어 말하면, 건축은 기존의 환경을 넘어서는 하나의 이미지를 具體化한다. 建築은 항상 人間の 諸 條件을 개선하려고 하는 소망을 반영하는 것이다. 결국 人間の 實存的 空間은 環境의 具體的인 구조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으나 이번에는 人間の 욕구나 소망이 feed-back을 일으키는 것——人間과 環境의 關係는 二方的 과정, 즉 참다운 의미에서의 相互作用이며 ‘건축적 공간’은 이러한 과정에서의 하나의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측면이다. 또한, 實存的 空間은 人間이라는 世界內存在의 부분을 형성하는 心理的 구조가운데 하나이며 그의 物理的 對應으로서 建築的 공간이 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理想的으로는 實存的 空間과 建築的 空間과의 사이에는 構造的인 同型的 關係가 있어야 하지만 實際적으로는 이것이 完全히 達成된다는 것은 아니다. 建築的 空間은 個人에게는 既成品이고 他人의 창조물이며 따라서 他人의 實存的

空間의 반영일 수가 있는 것이다²⁵⁾.

그러므로, 가족을 한 단위로 해서 발견되는 가장 압축적인 私의 空間으로서의 住居(house)를 진축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살게될 人間의 實存的 空間에 대한, 世界(=環境)에 대한 相互作用을 끊임 없이 feed-back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진정한 자기의 territoriality를 구현하면서 公共的 實存속에서 나의 實存을 발견하고 公共的 都市속에서 나의 집이라는 구체물을 통해 세계와 상호작용하며 살 수 있는, 즉 구조물 속에서 思惟的 實存과 物理的 實在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VI. 住居의 人間學的 意味

집의 人間學的인 意味, 다시 말해서 人間의 本質規定에 대한 집의 意味는 어떤 것인가?

Bollnow는 집은 人間의 本質을 규정하는데 있어서 中心的인 機能을 가지는 것이라고 하였고, Heidegger는 집을 짓고, 居住하며, 생각한다(bauen, wohnen, denken)는 강연에서 人間일 수 있다는 것은 산다[居住]는 것을 의미하며 人間은 우선 사는 것을 배워야 하고, 住宅을 소유하는 것이 상당기간까지는 산다[居住]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산다는 것은 하나의 과제이며 세계에 대한 총체적인 '관계의 급진적인 변화'를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Bachelard는 人間學的인 집의 哲學을 제시하고 집이 人間을 곳곳이 지탱시켜 주며 집은 우주에 반항하는 道具로서 집안에 산다는 것은 世界內에 산다는 사실을 매개해주고 또한 世界에 대한 총체적인 關係를 정리해 준다고 하였다. Merleau-Ponty는 '산다'는 문제를 人間과 世界와의 참다운 본래적인 關係라고 말하고, 보편적인 삶은 좁은 의미의 住居, 곧 집에 居住한다는 것과 밀접히 關係되어 있어서 집은 人間의 本質을 규정하는데 있어서 中心的인 機能을 가진다고 하였다. Goethe는 人間이 갖추어야 할 것, 본질적으로 人間에게 속한 것, 그것은 바로 집이라고 하여 人間은 집을 소유함으로써만 완전한 의미의 人間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우리들이 한 人間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住宅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住宅은 人間本質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住宅의 완전한 거주성은 한 가족의 공동적인 住居에서 비롯되고 또한 적어도 두사람 이상이 함께 居住하는 데서 비롯한다. 그럴때 비록 한 人間이 육체적으로는 가정에 머물러 있지 않다 하더라도 다른 한사람, 즉 제 2의 자기는 언제나 그곳에 있다는 Minkowski의 思想은 대단히 깊이 있게 여겨진다. 이처럼 人間은 자기의 居住空間을 하나의 外的인 所有物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에게 종속된 것이고 자기 자신의 한 부분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서 사실 집이란 우리의 넓혀진 몸이다. 그러므로, 非住居性(Unbehaustheit)을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짊어지고, 住居(Behausung)와 安定(Geborgenheit)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 이 절박한 世界內에서 단단한 기반을 확보하고 우연히 던져진 곳이 아니라 자기가 거기에 속해 있고, 그 속에서는 집에 있는 듯, 함을 느끼는 하나의 장소를 찾는 것, 밀어닥치는 無秩序(Chaos)속에서 질서의 한 영역을 빼앗아서 그 질서속에 자기의 바탕을 이룩하는 것, 의미없는 것을 의미 있는 것으로 창조하고 책임있는 행동을 하므로써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집을 제공하는 것이 人間의 참다운 과제이며, 집 없이는 실제로 人間은 人間답지 못한 人間으로 목적도 휴식도 없는 피난자로 남을 수 밖에 없으며 人間은 집을 소유한 居住者로서만 완전히 人間다운 수가 있다. 여기서 우리는 '집은 人間性的인 요람'이라는 집의 人間學的인 意味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다²⁶⁾.

VII. 結 論

以上에서 人間과 世界의 關係를 살펴보았고 세계=환경의 이미지에서의 住居의 人間學的인 意味를 확인하였다. 결국, 住居란 人間實存의 中心的인 場所로서 人間과 不可分の 關係에 있음을 보았다.

以上에서 살펴본 것은, 住居는 삶의 容器라는 現象의 理解를 보다 근원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이제까지의 哲學的 思惟를 정리하고, 그로부터 物理的인 場으로 구체화되는 과정까지는 연결을 하

였으나, 人間이 社會的 動物임을 주지하여 불 폐될수적인 社會的인 場에서의 住居의 役割的 意味는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住居에 대한 社會的 行動은 意味있는 他人으로 부터의 존경의 손실과 지위에 대한 잠재적 위협에 의해 動機化된다는 것에 비추어서, 住居에 대한 行動→態度→住居價値觀→一般價値觀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因果關係의 糾明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住居內 行動이 受容되는 物理的 環境으로서의 機能的 合理性의 추구에 있어서, 지나친 合理性은 오히려 人間性을 방해한다는 論理에 입각하여 容器 그 자체의 발전적 연구와 더불어 人間답게 居住하는 方法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도 부각이 된다.

또한, 하나의 住居가 居住者 자신의 實存의 空間에 부합되기 위한 居住性的 論議에서 뿐만 아니라, 住居의 心理的 接近에 있어서도 住居의 人間學的인 意味의 考察은 뜻깊은 기여를 하리라 기대되는 것이다.

參 考 文 獻

1. Morris, E.W., and Winter, M., *Housing Family and Society*, N.Y.: John Wiley & Sons., 1978, 4.
2. Hitchcock H.R., and Johnson P., *International Style*, N.Y.: W.W. Norton & Company, Inc., 1966, 35~39.
3. 柳榮進編, 후랑크·로이드·라이트, 世界建築 評論시리즈②, 서울: 産業圖書出版公社 1977, 206.
4. 小林重順著, 延濟振譯, 建築心理入門, 世界建築 評論시리즈①, 서울: 産業圖書出版公社 1975, 15.
5. *Ibid.*, 7.
6. Dubos, Rene, "Our Building Shape Us", *Housing Perspectives*, 2nd ed., edited by C.S. Wedin and L.G. Nygren, Minn.: Burgess Publishing Co., 1979, 4.
7. 李奎浩. 사람됨의 뜻, 서울: 第一出版社, 1969, 7~12.
8. Bollnow, O.F., 최동희역, 실존철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서문당, 1972, 70.
9. *Ibid.*, 69.
10. 李奎浩, *op. cit.*, 55.
11. *Ibid.*, 54.
12. 金整秀, Otto F. Bollnow와 Thendore Brameld의 教育 哲學比較研究, 梨大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請求論文, 1974, 14.
13. 李奎浩, *op. cit.*, 54.
14. Schulz C.N.著, 金光鉉譯, 實存, 空間, 建築 世界建築評論시리즈⑬, 서울: 産業圖書出版公社, 1977, 39~41.
15. *Ibid.*, 39~41.
16. *Ibid.*, 46~47.
17. Hall, E.T., *The Hidden Dimension*, Doubleday and Co., 1966, Chap. 1~2.
18. 金光鉉, *op. cit.*, 47~48.
19. *Ibid.*, 48.
20. Faulkner R. and Faulkner S., *Inside Today's Home*. N.Y.: Halt, Rinehart and Winston, 1973, 3.
21. Hall, E.T., *op. cit.*, 9.
22. Schulz, C.N., *Existence, Space & Architecture*, N.Y.: Praeger Publishers, 1971, 31.
23. *Ibid.*, 31.
24. Heidegger, M., *Bauen, Wohnen, Denken*, Vorträge und Auf Sätze II, Pfullingen, 1954, 23. C.N. Schulz, 31에서 재인용
25. *Ibid.*, 37.
26. 韓國哲學會編, "人間과 그의집" 現代哲學의 展望, O.F. Bollnow原著, 서울: 法文社, 1967, 26~42.